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3월 18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행18장 12-17절

설교제목 :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이 고린도에 일 년 육 개월을 머물게 되어진 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일 년 육 개월이란 시간은 사명에 헌신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헌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방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헌신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필요하실 때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이 지금도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타이밍 때문입니다. 만일 그냥 평소 같았다면 그 여인이 깨뜨린 옥합은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드러진 옥합이기에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헌신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12절) 그 이유는 갈리오가 이제 막 총독이 되었기에, 현지 사정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일제히’란 헬라어 ‘호모튀마돈’은 ‘동일한 열정’이나 ‘분노’란 뜻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대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렙히스 데미’는 ‘쇄도하다’, ‘공격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유대인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기습적으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둑 소리치면서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13절) 유대인들이 소리치며 고소한 내용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노모스’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로마의 법’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법에 의해 공인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의 유포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소한 이유가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 문제화시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법으로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선동가로 매도합니다. ‘권한다’는 헬라어는 ‘악을 행하도록 부치기거나 선동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의 고소 내용 자체가 억지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제거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유대인들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도 모른채 억지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의 손익여부에 따라, 혹은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자신의 손익계산서를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가진 성도와 교회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주어지는 반대를 결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해 사명을 도피하는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명을 도피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의 억지 고소에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14-15절)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바울이 반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의 고소

를 기각한 이유는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소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주장임을 이미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고소를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승복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결국 갈리오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유대인들을 법정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16절) 그리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유대인의 고소의 부당함을 목격한 고린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악랄함과 무례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유대인들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했던 소스테네를 붙잡아 법정 앞에서 구타를 했습니다.(17절) 고린도 사람들의 구타는 집단적인 폭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고린도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구타한 사건을 방관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괴롭히는 소스테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소한 사건은 결과적으로 바울의 선교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화가 오히려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명을 위한 헌신의 길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중앙 그리스에 있는 델피 신전의 비문에 의하면 갈리오는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아가야의 총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한 일 년 육 개월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고린도에 일 년 육 개월을 머무르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갈리오**라는 현명한 총독을 준비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갈리오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의 길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각별한 은혜를 통해 그 헌신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명의 길에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던 것처럼 여전히 두려움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 나누어보기

- 1)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갈리오가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헌신의 길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각별한 은혜를 통해 그 헌신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